

예능 프로 소개 '미디어 셀러' 인기 지속

상반기 도서판매·베스트셀러 분석

코로나 19의 확산이 전 세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삼킨 가운데, 상반기 독서시장에 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집적이 늘면서 오프라인 서점 방문객이 현저히 줄었으며 서점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독서모임도 중단됐다. 언택트 시대 신규 독자들의 온라인 주문이 늘어난 것은 오늘날의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한 학기 한 권 읽기' 확대 시행과 홈스쿨링 영향으로 청소년 소설의 판매도 증가했다. 손원평의 '아몬드', 김진영의

'아몬드' '시간을 파는 상점'

청소년 소설 판매도 증가

과학·경제책 코로나 수혜

'시간을 파는 상점' 등 소설이 약진했다.

역사와 관련된 책은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무기와 병균, 금속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조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TV에는 소개로 다시금 베스트셀러 1위로 올라섰다. 서울대 도서관 대출 순위 1위에 올라 역주행 하는 등 추천도서로 꼽힐 만큼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징비록', '단테의 신곡', '하멜표류기', '한중록' 등도 TV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역사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정치사회 분야 책도 대중 매체를 통해 소개된 미디어셀러가 강세를 보였다. 예능 프로에 소개된 팀 마샬의 지리가 어떻게 개인의 운명과 세계사를 좌우하는가를 조명한 '지리의 힘'이 인기를 끌었다. 일지리에 대한 통찰을 담은 제라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도 주목받았다.

인터파크 또한 올 상반기에는 책 교양 프로그램에 언급된 책들이 역주행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미디어셀러에 대한 독자들이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특히 tvN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는 고전 스테디셀러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독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차트 역주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의 탄생과 은하계의 진화 등을 고찰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설민석의 '설민석의 삼국지', 보통 사람과는 다소 다른 이들의 독특한 인상 기록인 올리버 색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세상을 이해하는 10가지 이유를 기술한 한스 로슬링의 '팩트 풀니스' 등이 주목 받았다.

언급한 대로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과학 관련 서적도 예년보다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바이러스 쇼크',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와 같은 책의 판매가 급증하며 관련 도서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 위기 속 재테크 관련 책이 '코

로나 수혜'를 입으며 관심을 받았다. 세계 경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독자들의 선택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내일의 부' 시리즈, '금융위기 텀플릿' 등 재테크 전략을 모색한 책들의 인기가 높았으며 주식 투자와 관련된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각광을 받았다.

인터파크도 '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필두로 투자와 재테크 분야 도서 판매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폭락한 주식을 사들이는 행태를 빚낸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주식 관련 책들도 관심을 끌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 관련 책들도 꾸준히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흔한남매'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흔한남매' 시리즈가 마니아 독자층을 형성하며 화제를 모았다. 시리즈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는 책도 꾸준히 사랑받았다. 특히 '행수, 디오지니얼', '행수 팽아트 #컬러링북'이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산책, 등산, 캠핑, 자전거 여행...

근래 빅데이터상에 가장 많이 언급된 여행 관련 키워드들이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코로나19 이후 여가를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19억 6천여 만건의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소소한 일상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여행, 관광, 여가와 관련된 모든 언급량이 감소한 반면 산책, 캠핑, 등산, 자전거 여행에 대한 검색량은 급증했다. 즉, 사람들의 여행 행태가 해외여행을 포함한 장거리 여행에서 가까운 교외형 여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갈'이 막혀 부득이 연기결정을 하게 된 것.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 사천비엔날레와 제주비엔날레도 각각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외국의 사정은 더 암울하다. 올 5월 예정이었던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이 내년으로 연기됐는가 하면 시드니, 헬싱키, 상파울루 등의 비엔날레도 내년으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개최로 방향을 틀었다. 2020 리버풀 비엔날레의 총감독 파토스 우스텍(Patos Ustek)은 온라인 미술사이트 '아트넷'(Artnet)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은 수십여 개의 비엔날레가 한꺼번에 열리는 '문화 대충돌'(car crash of cultural events)의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 노멀 시대, 비엔날레 미래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가 바꾼 사회 풍경,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의 등장이다.

초대형 미술이벤트인 비엔날레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예정된 내로라 하는 수십 여개의 비엔날레가 축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화현장이 코로나19로 사실상 울스톱 됐지만 국제행사인 비엔날레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기획한 광주비엔날레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비엔날레 재단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0광주비엔날레를 내년 2~5월로 연기했다.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5~6월 두 전시 감독과 다수의 외국작가가 국내에 머물며 신작과 퍼포먼스를 위한 현장 작업을 해야 하지만 '하늘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광주비엔날레의 미래다. 80·90년대 전성기를 이룬 비엔날레의 백화점식 전시가 언제까지 통할 것이냐는 것이다. 프랑스의 리옹비엔날레 등 몇몇 비엔날레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비용의 메가 이벤트보다는 지역성에 방점을 둔 '소박한'(homespun) 행사로 궤도수정을 하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국내외 주요 미술관이나 공연장들이 비대면(Untact)문화의 확산에 맞춰 실용적인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과 소통해야 하는 미증유의 시대에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가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 참가자 모집

문화집단 열혈지구, 총 15회 진행

문화예술단체 '문화집단 열혈지구'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4년부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기획·진행했던 '경자씨와 재봉틀'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 사업으로 전환돼 민간 단체가 운영하게 됐다. '경자씨와 재봉틀'은 신중년(50~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생애전환기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경자씨와 재봉틀_인생 리폼'의 주

제는 '다시 시작하는 시기'로 다양한 시선에서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문학, 미술, 사진, 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를 결합한 '쓰다 예세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 '새롭게 발견하고 찾게 된 내 인생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은 25일부터 9월 24일 매주 목요일(오전 10시~오후 1시) 총 15회 과정으로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15명, 참가비 무료. 문의 010-9893-324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박물관, 19일 신안선 문화재 문화상품 관련 세미나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2023년 신안선 출항 700년을 계기로 도자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핵심 콘텐츠 신안해저문화재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광주박물관이 신안선 출항 700년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신안해저문화재 문화상품 개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19일 오후 2시 박물관 소강당(교육관 지하 1층)에서 열리며, 박현우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특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이 이번 브랜드 문화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박물관문화재단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화상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경 팀장과 박계연 전문관이 각 기관 개발 사례를 발표한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김지연 팀장은 '문화상품을 통한 대항해시대의 호기심 상사 '신안선' 메타-투어'를 주제로 과제를 고찰한다. 브랜드 디자인 전문가 김성천 대표(시디알 어소시에이츠)는 신안해저문화재를 활용한 브랜드와 문화상품화 방향에 대해 들려준다. 도예가 강경인 고려청자박물관 실장, 광주지역 문화상품 개발 전문가인 한우성 센터장(유니버설트렌드센터)이 발표 및 토론자로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숲 전문가 김재현 18일 양림동서 특강

김재현 전 산림청장이 18일 오후 7시 광주 양림동 '10년 후 유치원'에서 공개 특강 '숲: 내일의 키워드'를 갖는다. 다가올 내일(next)의 핵심 키워드로 내일(숲)의 영감을 얻기 위해 구성된 이번 특강에서는 '숲'이 첫번째 미래의 키워드로 선정됐다.

'숲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김 전 장관은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숲 자원이 가진 의미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를 들려줄 예정이다.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현재 (사)평화의 숲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의 양림동 옛 은성유치원을 리모델링한 '10년 후 유치원'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자신의 커리어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개인들을 지지하며 10년 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게 될'리하는 이번 강연에서 만드는 프로젝트다. 선착순 50명. 문의 070-4239-5040 /김미은 기자 mekim@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유)신 화 로 프

본점: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아)
무항생제 경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부위
☎ 062)412-1961, 010-5828-1961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스터미발뿔면)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점,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 자연모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어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우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